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 년 11 월 26 일 오전 10 시 30 분(현지 시간),
호주 멜버른 하이델베르크의 오스틴 병원에서
안토니에타, 마리아 레티지아 셀레 수녀님이
향년 96 세, 수도 생활 71 년으로
지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창립자의 천상탄일을 축하하는 날, 하느님께서는 선교사 레티지아 수녀를 당신에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니*, 오늘 전례에서 우리가 부르는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호주에서 이 선교사 수녀의 신앙과 아낌없는 헌신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안토니에타는 1928 년 4 월 6 일 티제르(고살도-BL)에서 태어났고, 1928 년 4 월 7 일 티제르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1950 년 2 월 11 일 산 피에트로 알레 아퀘(PG)에서 수녀회에 입회했고, 1950 년 8 월 15 일 착복 후 트랜스아쿠아로 파견되었다. 같은 해 젠자노(RM)로 돌아와 양성을 계속받았고, 1952 년에는 로사노 스타치오네(CS)로 파견되어 사도직에 임명되었다. 1953 년 6 월 12 일 마사 마르타나(PG)에서 '첫 시간'의 파스토렐레 그룹과 함께 마리아 레티지아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다. 1957 년 10 월 27 일에는 알바노-모원에서 종신 서원을 했다.

종신 서원 후 마리아 레티지아 수녀는 호주의 칼튼 멜버른 공동체로 '선교 모험'을 떠났습니다. 레티지아 수녀는 선교사로 파견된 수녀들의 전형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시의 회고록에서 레티지아 수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었고, 매우 긴장했고, 마치 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만지며 '이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깨에서 끔찍한 무게가 벗겨진 것처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고, 마치 태양이 제 위로 지나가고 구름 뒤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1958 년에 마오루브라(시드니)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칼튼 멜버른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성기 시절 레티지아 수녀는 창립자와 깊은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페루지아 근처의 수녀 공동체를 방문하려던 중 한 일화를 기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와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레티지아 수녀가 매우 기쁘고 놀랍게도 한 노인이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레티지아 수녀는 설립자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열정적으로 지켜냈고, 호주에서 살면서 젊은 수녀들에게 알베리오네 신부가 바오로 가족 전체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던 경험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가정 사목과 약자들을 위한 사목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탈리아 이민자들과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을 동반하며 사목 사명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구의 평의원과 경제 담당자로 활동하였습니다. 1963 년 쏜베리 공동체, 1981 년 토마스타운 공동체, 1983 년 쏜베리 공동체, 1991 년 토마스타운 공동체에서 활동했으며 2020 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2020 년부터는 분두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건강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교 수녀들의 삶을 따르며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레티지아 수녀가 외부 직원들의 유능한 관심 속에서 평온하게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레티지아 수녀는 선교의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황금 수녀'로 묘사됩니다. 기도와 행동을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의 무상함에 기초한 관계에 결단력 있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선교에 착수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사도 정신으로 사목 사도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몇몇 수녀들은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녀회와 공동체 수녀들, 바오로 가족,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눴던 프리모 마에스트로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지주이었습니다.

그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에 흠잡을 데 없이 충실했습니다. 그는 1 등이었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라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권고를 잘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에 유순하게 협력하는 정신이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녀는 공동체의 수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레티지아 수녀와 가까이 지내며 공동체 수녀들과 외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녀를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일이었고, 형제적 친교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레티지아 수녀님, 아버지의 자비에 당신을 맡기면서 선교사적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충실한 당신의 증거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해 주셨던 설립자 축일을 맞이하여, 바오로 가족의 거룩한 성소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　　장

2024 년 11 월 26 일 쿠쿠타(콜롬비아)에서,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축일에